

IBKS Spot Comment

IT/소재/부품/장비

이건재

02)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5%p 상향

What's New:

18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에 투입된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을 통과 시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헌법 및 다른 법률과 충돌 여부를 확인한 후, 법률 체계 및 문구 정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Analysis: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기존 15% → 20%로 5%p 상향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25% → 30%로 확대됨.

K칩스법 시행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세액공제율 상향은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과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

So What?:

하반기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전망되기 시작했으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과 주식 레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 반도체 섹터는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기 이전에 멀티플 상향이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 것으로 보임.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하지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쉐어는 NVIDIA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만 두드러져 반도체 소부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는 못했음.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앞으로도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 프리미엄 확장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

시장의 위험 수준은 낮지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찾기 위해 삼성전자 밸류체인 부활에 관심과 기대를 높일 것이라 예상됨.